

## 액션러닝 기반의 다문화 간호교육이 문화적 역량 증진에 미치는 효과

김연순<sup>1\*</sup>, 김진영<sup>2</sup>

<sup>1</sup>전남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sup>2</sup>전남대학교 교육학과

### The Effect of the Cultural Competence in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by Action Learning

Yeon-Soon Kim<sup>1\*</sup>, Jin-Young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nam Techno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액션러닝 기반의 다문화 간호교육이 문화적 역량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4년제 간호학과 학생 118명으로 다문화 간호를 수강하는 학생이었다. 이 중에서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은 61명 이었고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집단은 57명이었다. 다문화 간호수업은 2시간씩 13회 실시하였고 1회와 13회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집단 내 사전·사후 비교는 대응표본 t검증, 집단 간 사후비교는 일원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 간호교육의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방법과 액션러닝 기반의 수업방법에서 모두 문화적 역량이 증진되었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 요인 즉, 문화지식, 문화인식과 문화수용성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다문화 간호교육에서 액션러닝 기반 수업과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은 문화적 역량의 하위요소인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액션러닝 기반 수업이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에 비하여 문화적 수용성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다문화 간호교육이 문화적 역량 증진에 효과적이며, 특히 수업방법에 있어서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보다 액션러닝 기반의 수업이 문화적 수용성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간호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참여 전략을 사용하는 액션러닝 기반의 수업방법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수업방법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하여 과제 유형에 따른 액션러닝 기반 수업 설계, 간호행위로의 수행 그리고 액션러닝 기반 수업 성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is to confirm the effects of cultural competence of an action learning based teaching method in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Cultural competence was composed of cultural knowledge, 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acceptance. A total of 118 college stud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Both before and after learning, the students were guid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regarding culture competence. The students from each group studied multicultural nursing by different teaching types: the Traditional Lecture-based Teaching method (TLT) and Action Learning based Teaching method (ALT).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by SPSS 21.0. A pre-post comparison within the group was performed using a paired t-test and the comparison between groups was performed using ANCOVA.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ulture competence in both teaching methods. In addition, ALT showed higher cultural acceptance results than TLT;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awareness between the two groups Therefore, ALT should be considered as a teaching method to enhance cultural competence in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Further studies on instructional design according to the task types, nursing performance, and the validity of ALT will be needed.

**Key Words** : Action learning,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teaching methods

\*Corresponding Author : Yeon-Soon Kim(Chunnam Techno Univ.)

Tel: +82-61-360-5133 email: yayakim11@gmail.com

Received August 19, 2014 Revised (1st September 12, 2014, 2nd September 29, 2014, 3rd October 17, 2014, 4th November 5,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 1. 서론

###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의료서비스 제공 있어서 외국인 대상자와 언어적 의사소통을 넘어 그들의 지역, 생활양식, 태도 등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실제 타문화권의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의료인과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견해 차이, 도움을 구하는 행동의 차이 등 건강과 의료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1,2]. 이러한 의료인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타문화 대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인에게 있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요구된다[3]. 문화적 역량은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간호에서의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자발적 인식과 공감적 민감성을 토대로 건강신념, 건강 관습 및 문화건강관련 지식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유와 체험을 체득하여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간호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4].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연구자들에 따라 일부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그리고 문화적 수용성으로 구성된다. 문화적 인식은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는 것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점검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탐색과정이다. 문화적 지식은 다양한 문화에 경제, 정책, 관습 등에 관한 지식이며, 문화적 수용성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5].

다양한 문화의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간호대학생들은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벗어나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치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적용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6]. 그러나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는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문화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요구로 나타난다[7].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다문화 사

회를 먼저 경험한 나라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시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8]. 우리나라 또한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들이 다문화 사회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 간호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에 관한 국가 표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문화 간호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교육내용, 교수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수업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다문화 간호 수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 방법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다. 강의식 수업은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자의 설명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방법으로 교수자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지식전달 교육에 있어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반면 교수자와 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칫 수동적이고 비참여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은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태도의 변화, 다양한 사고의 촉진, 가치관 형성 및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대한 지식적으로 협동학습, 팀기반 학습, 문제중심학습, 사례중심학습, 현장실습, 시뮬레이션기반 학습, 액션러닝 등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동료 학습자와 함께 과제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수업방법으로,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질문, 피드백 및 성찰 등을 통해 과제의 내용과 문제해결과정을 학습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9]. 이러한 액션러닝은 소집단 학습팀, 팀워크, 실제적인 문제 또는 과제,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성찰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액션러닝을 통해서 학습자는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올바른 질문과 문제 상황에서의 실행력, 그리고 비판적 성찰이 학습된다[10].

국내 대학은 초창기 액션러닝을 주로 경영학 분야에서 도입하여 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경영학 분야에 도입된 액션러닝은 기업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조직의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제를 통해 교과목의 학습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활동을 통해 협동심, 의사소통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11,12]. 이러한 경영학 분야의 액션러닝 성과로 인하여 대학에서 교양분야, 인문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수업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 액션러닝을 활용한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액션러닝을 적용하여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고[13], 간호관리학 강의와 실습에 있어서는 문제해결능력, 팀 효능감 및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14]. 그리고 김윤민의 연구에서는[15] 역동적인 집단 활동의 액션러닝이 간호전문직관 함양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만족도에 있어서 액션러닝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과는 달리 간호에 대한 가치, 긍정적인 신념 및 긍지 등의 간호대학생의 인식 변화 목적으로 하는 수업에서도 액션러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액션러닝이 통찰과 혁신적인 사고를 위한 집단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형식적인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며, 구성원들의 자발성, 임파워먼트, 신뢰와 비밀유지, 지원과 도전,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민주적인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9,10,16].

최근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문화적 역량 증진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17-19]이 있으나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문화적 역량을 증진을 위한 수업방법이나 교수 학습 전략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간호교육에 있어서 소집단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액션러닝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업을 수행하고, 학습자의 문화적 역량 증진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역량의 하위 요인인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 및 문화적 수용성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J도 소재 C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3학년으로 다문화간호를 수강하는 사립대학교 학생이었다. 전체 표집인원은 128명이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표집대상으로 선정된 표집 인원은 총 118명이었다.

### 2.2 측정도구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박정숙이 Caffrey 등(2005)의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care Scale (CCCHS)’와 Schim 등(2003)의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CCA)’를 바탕으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4].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의 하위 요인으로 문화적 수용성 12문항, 문화적 지식 10문항, 문화적 인식 6문항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평점 척도이며 가능한 총점 범위는 28-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정숙이 개발한 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Ch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연구의 문화적 역량검사 도구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hronbach’s α)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the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competence	Pretest	Posttest
Cultural cognition	.642	.703
Cultural acceptability	.780	.855
Cultural knowledge	.862	.709
Total	.893	.888

### 2.3 연구 가설

다문화 간호교육에서 액션러닝 기반의 수업방법이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보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연구설계

이 연구는 무선 표집에 대한 제약으로 기존 수업 집단을 활용한 이질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를 실시하였다.

### 2.5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간호학과 3학년 다문화 간호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Table 2] Topic and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y teaching methods

Session	Traditional lecture		Action Learning	
	Topic	Activities	Topic	Activities
1	Orientation	- Guide for syllabus - Question and answer	Orientation	- Ice breaking - Survey for team building - Making ground rule - Reflection
2	Glob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Actions for team activities	- Team building - Deciding who does what - How to listen, praise and ask a question - Reflection
3	Culture and health management of countries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Culture and health management of countries	- Window panning (representation by figures) - Reflection
4	Culture and health management of countries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Culture and health management of countries	- Jigsaw cooperative learning - Reflection
5	Culture and health management of countries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Foreign guest lessons - cultural difference - health care difference	- Conversation with foreigners - Making questions - Questions and Answers - Reflection
6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nursing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nursing	- Jigsaw cooperative learning - Reflection
7-8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movie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Understanding and solving problems in the video	- PBL(Problem Based Learning) - NGT, multi-voting - Reflection
9	Culture theory and culture nursing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Multicultural problems and culture nursing in korean society	- PBL(Problem Based Learning) - NGT, multi-voting - Reflection
10	Multicultural problems and culture nursing in korean society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Multicultural problems and culture nursing in korean society	- PBL(Problem Based Learning) - NGT, multi-voting - Reflection
11-12	Law and policy related multi-culture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Law and policy related multi-culture	- Peer tutoring - Quiz - Reflection
13	Summary	- Explanation - Question and answer	Group presentation	- Analysis and nursing methods through multi cultural nursing case - Reflection

연구가 진행된 학기에 학생들의 병원현장실습으로 인하여 1주에 2회 수업이 진행되었다. 다문화 간호 수업은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1회에 2시간씩 총 13회 실시하였다.

두 수업방법 모두 동일한 교수자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액션러닝 기반 수업방법을 적용한 집단의 학생들은 5-6명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였고, 연령, 성별,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집단 내의 구성은 이질적으로, 집단 간은 동질 집단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과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명목집단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을 활용하여 집단 활동 속에서 개인 활동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이 집단 활동에 편승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주제별 수업을 마무리할 때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10-15분 동안 성찰활동이 이루어졌다. 성찰활동은 구두발표와 성찰일지 작성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액션러닝에서 강

조하는 실제적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실제 다문화 간호 상황에서의 실습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다문화 간호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문제기반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즉, 문제제시, 문제파악, 학습계획,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팀 활동, 해결책 완성,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업 주제와 주요 활동은 [Table 2]와 같다. 반면, 전통적인 강의 기반 다문화 간호 수업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 교수자의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과 전통적인 강의 기반의 수업 집단 모두 첫 번째 수업과 마지막 수업에는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 간호교육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들을 활용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역량 증진에 대한 수업방법에 따른

다문화 간호교육의 효과검증을 위해서는 일원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연령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통해 두 집단 동질성 검증 결과와 집단에 따른 성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Homeogenous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group		N	M(SD)	t	p
age	Traditional Lecture	57	22.11(3.23)	-.689	.492
	Action Learning	61	22.47(2.32)		
gender	Traditional	5	8.8	-	-
	Lecture	52	91.2		
	Action	15	24.6		
	Learning	46	75.4		

#### 3.2 전통적인 강의와 액션러닝 기반 수업의 사전·사후 문화적 역량 차이 검증

문화적 역량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Difference analysis of pre-posttest for the cultural competence between groups

group		M(SD)	t	df	p
cognition	pretest	16.18(2.65)	8.157***	56	.000
	posttest	19.47(3.12)			
Traditional ability (N=57)	pretest	32.39(4.35)	8.706***	56	.000
	posttest	38.44(5.51)			
	pretest	22.72(4.42)	9.857***	56	.000
	posttest	31.65(6.80)			
total	pretest	71.28(9.28)	11.499***	56	.000
posttest	89.56(13.40)				
cognition	pretest	15.25(3.32)	9.301***	60	.000
	posttest	19.92(2.72)			
Action Learning (N=61)	pretest	31.54(5.83)	11.410***	60	.000
	posttest	40.15(6.19)			
	pretest	20.85(4.50)	14.287***	60	.000
	posttest	32.87(5.35)			
total	pretest	67.64(12.69)	13.808***	60	.000
posttest	92.93(12.69)				

\*\*\* p<.001.

문화적 인식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후 점수가 19.70(2.92)으로 사전 점수 15.69(3.04) 보다 높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사전 점수는 16.18(2.65)로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사전 점수 15.25(3.32)보다 높았다. 그러나 사후 점수는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점수가 19.92(2.72)로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점수 19.47(3.12)보다 높았다.

문화적 수용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사후 점수가 39.32(5.91)로 사전 점수 31.95(5.16)로 높았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사전 점수는 32.39(4.35)로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사전 점수 31.54(5.83)로 높았다. 그러나 사후 점수에서는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이 40.15(6.19)로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사후 점수인 38.44(5.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지식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사후 점수가 32.28(6.10)로 사전 점수인 21.75(4.54)보다 높았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사전 점수는 22.72(4.42)로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사전 점수 20.85(4.50)보다 높았다. 그러나 사후 점수에서는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이 32.87(5.35)로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점수 31.65(6.80)보다 높았다.

문화적 역량 총 점수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후 점수가 91.31(13.09)로 사전점수 69.40(10.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사전 점수는 71.28(9.28)로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사전 점수 67.64(12.69)보다 높았다. 그러나 사후 점수에서는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점수가 92.93(12.69)으로 전통적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점수 89.56(13.40)보다 높았다.

또한 전통적 강의와 액션러닝 기반 수업 모두 문화적 역량 증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강의 기반 수업의 사전·사후 문화적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 $t=11.499, p<.001$ ), 하위 요인인 문화적 인식( $t=8.157, p<.001$ ), 문화적 수용성( $t=8.706, p<.001$ ), 문화적 지식( $t=9.857,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액션러닝 기반 수업도 사전·사후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t=13.8082, p<.001$ ). 하위 요인인 문화적 인식( $t=9.301, p<.001$ ), 문화적 수용성( $t=11.410, p<.001$ ), 문화적 지식

( $t=14.287,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3.3 문화적 역량 증진에 있어 전통식 강의와 액션러닝 기반 다문화 간호교육 간 차이 검증

다문화 간호 수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의 기반 수업과 액션러닝 기반 수업이 문화적 역량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일원공변량 분석을 위한 동질성 가정 결과, 전체( $F=.005, p>.05$ ), 문화적 인식( $F=.033, p>.05$ ), 문화적 수용성( $F=.018, p>.05$ ), 문화적 지식( $F=.123, p>.05$ ) 모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조정평균 93.77(1.55)이 전통식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조정평균 88.66(1.61)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5.160, p=.025$ ).

[Table 5] ANCOVA analysis of cultural competency improvement for between groups

(N=118)

source	SS	df	MS	F	p	$\eta^2$	
Cognition	pretest	85.54	1	85.54	10.867**	.001	.086
	group	14.46	1	14.46	1.837	.178	.016
	error	905.26	115	7.87			
	total	996.62	117				
Acceptability	pretest	975.37	1	975.37	37.049**	.000	.244
	group	139.48	1	139.48	5.297*	.023	.044
	error	3028.34	115	26.33			
	total	4089.76	117				
Knowledge	pretest	215.79	1	215.79	6.061*	.015	.050
	group	90.41	1	90.41	2.540	.114	.022
	error	4094.15	115	35.60			
	total	4353.77	117				
Total	pretest	3064.55	1	3064.55	21.160**	.000	.155
	group	747.36	1	747.36	5.160*	.025	.013
	error	16655.23	115	144.83			
	total	20055.02	117				

\*  $p<.05$ , \*\*  $p<.01$ , \*\*\*  $p<.001$ .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문화적 인식의 경우 전통식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조정평균은 19.34(.37)로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조정평균 20.05(.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837, p=.178$ ). 문화적 지식의 경우에서도 전통식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조정평균이 31.35(.80)로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조정평균 33.14(.77)보다 낮았으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F=2.540, p=.114$ ). 그러나 문화적 수용성의 경우 액션러닝 기반 수업 집단의 조정평균이 40.38(.66)로 전통식 강의 기반 수업 집단의 조정평균 38.19(.68)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5.297, p=.023$ ).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 간호의 수업방법으로 액션러닝의 기법을 도입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간호교육은 액션러닝 기반 수업방법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강의 기반 수업방법에 있어서도 문화적 역량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이는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관련 교육을 받은 후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아졌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5,7,17-21].

그러나 김덕희와 김성은[6]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 간의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목으로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 기반 수업방법에 기인한 결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전통적인 강의 기반 수업이 문화적 역량 증진에 효과적이었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동일한 수업방법일지라도 교수자의 역량,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태도, 그리고 수업 환경 등의 차이가 문화적 역량 증진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교수자의 문화적 공감,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력은 문화적 역량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22], 학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국어 수강경험이 있을수록, 외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권의 환자와 및 의료인과의 접촉이 있을수록, 그리고 문화 관련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4]. 또한, 김덕희와 김성은[6]은 여학생보다 남학생, 저학년보다 고학년,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교수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교수자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 및 수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교한 수업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방법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다문화 간호교육에 있어서 액션러닝 기반 수업이 전통적인 강의 기반 수업에 비하여 문화적 역량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인식의 증진에는 차이가 없으나 문화적 수용성에서는 액션러닝 기반 수업이 전통적인 강의 기반 수업에 비하여 훨씬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액션러닝은 개인학습이 아닌 소집단을 구성하여 집단 내와 집단 간 학습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 설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료학습자와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 또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의견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적 수용성에 있어서 액션러닝의 수업이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자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2,23]. 또한 액션러닝에 대한 연구에서 액션러닝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상호 존중, 그리고 칭찬과 격려, 성찰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와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24-26]. 특히,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성찰활동은 특수아동, 초·중등학생, 예비교사, 교사, 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성찰, 분석, 반성의 기회를 체험하는 것이 수업태도와 수업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27,28].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로 본 연구를 해석해 보면 액션러닝 기반 수업이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과 공감능력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문화적 역량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액션러닝은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강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학습결과를 획득한다. 즉 액션러닝에서는 단순히 암기하여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와 끊임없는 인지 활동을 통해 의미부여와 해석으로 지식이 내면화되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25]. 따라서 문화적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도 액션러닝은 의미있는 수업방법이

라 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간호교육에서 액션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방법이 문화적 역량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전통적인 강의 기반 수업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간호교육은 문화적 역량 증진에 있어서 전통적 강의와 액션러닝 기반 수업방법 모두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액션러닝 기반 다문화 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의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지식의 증진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의 기반 수업과의 차이는 없었으나 문화적 수용성 증진에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른다. 둘째, 다문화 간호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간호 행위를 실습하거나 실제 다문화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와 함께 다문화 간호를 체험하도록 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에 따라 문화적 역량 증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액션러닝의 과제 유형과 문화적 역량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문화적 역량을 문화적 지식,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수용성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자가평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향후 실질적인 행위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액션러닝 기반 교수방법의 교육적 성과를 검증한 실험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반복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C. K. Koh, S. K. Koh, "Married Female Migrants' Experiences of Health Care Servi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5 No.1, pp.89-99,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1.089>
- [2] M. J. Choi, S. B. Im, "Communication Experiences between

- Nurse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during their Children's Hospitaliza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6 No.2, pp.133-148, 2011.
- [3] Campina-Bacote J, "Becoming culturally competent in ethnic psychopharmac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Vol.45 No.9, pp.27-33, 2007.
- [4] S. Y. Han,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te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 [5] M. S. Park, "Study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1.
- [6] D. H. Kim, S. E. Kim,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22 No.3, pp.159-168, 2013.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3.22.3.159>
- [7] I. S. Lee, J. Y. Cho,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5 No.1, pp.283-290,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83>
- [8] M. S. Park, Y. R. Gweon, "Effects of a Cultural Competence Promo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Maternity Nursing Care: Case-based Small Group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3 No.5, pp.626-635,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26>
- [9] H. C. Bong, W. Y. Eom, *Understanding Action Learning*, Hakjisa Publishers, 2014.
- [10] J. Y. Jung, G. P. Hong, J. A. Lee, *PBL and Action Learning*, Hakjisa Publisher, 2012.
- [11] Y. T. Seo, H. C. Bong, "Types of Action Learning Program and their Characteristics: Results of 10 Case Studies",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Vol.26 No.2, pp.83-115, 2008.
- [12] H. S. Kim, H. C. Bo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mpetency Model for Action Learning Coach",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Vol.28 No.2, pp.53-80, 2010.
- [13] K. S. Jang, S. J. Park, "Effects of Action Learning Approaches on Learning Outcomes in Nursing Management Co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8 No.4, pp.442-451, 2012.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4.442>
- [14] Y. M. Kim, Y. H.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ction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0 No.6, 2010.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0.10.6.312>
- [15] Y. M. Kim, "Evaluation of Design and Operation of Action Learning based Nursing Professionalism Course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te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 [16] E. H. Koh, S. S. Yang,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Attitude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Non-cognitive Results in Action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4 No.2, pp.477-501, 2012.
- [17] E. H. Peek, C. S. Park,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3 No.5, pp.690-696,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90>
- [18] S. H. Kim,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and its Effec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580-593, 2013.
- [19] M. H. Park, E. A. Park. "Effect of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for Nurse".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6 No.2, pp.115-133, 2013.
- [20] Caffery, R. A., Neander, W., Markle, D., Stewart, B., "Improv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Results of integrating cultur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4, pp.234 - 240, 2005.
- [21] Hawala-Drury, S., Hill, M. H., "Interdisciplinary: Cultural competency and culturally congruent education for millennials in health professions". *Nurse Education Today*, 32, pp.772-778, 2012.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2.05.002>
- [22] G. J. Yoon, "The Effects of Cultural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Solving on the Cultural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9 No.3, pp.105-129, 2014.
- [23] S. Y. Yang, H. N. Lim, J. 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9 No.2, pp.183-193,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 [24] N. M. Yun, "A study on the Effects of Reading Discussion by Action Learning on the Jr.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Empat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3.



- [25] E. H. Koh, Research on Instructional Improvement of Faculty with Action Learning ,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5 No.1, pp.69-94, 2013.
- [26] K. W. Chang, "A Model of Action Learning Program Design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7 No.3, pp.475-505, 2011.
- [27] M. R. Eom, I. W. Park IW, "The Investigation of Learner-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the Effect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on Learning in e-Portfolio",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7 No.1, pp.213-246, 2011.
- [28] A. R. Han, A Study on the Effect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as a Post-reading Activity up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Ability and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김 연 순**(Yeon-Soo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멀티미디어, 수업 설계, 수업 컨설팅, 인지심리

---

**김 진 영**(Jin-Young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수료)

<관심분야>

교육공학, 협동학습, 고등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